

《 중국어 보고서 자료 》

하이에듀

주제	중국어 보고서 자료
요약	말씀하신 주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국학자의 심성론을 서양의 심리학자와 비교

[중국학자의 심성론]

심성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리학, 성리학의 연구주제 중 한 가지인 이기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성즉리'입니다. 여기서 '성'은 본성을 나타내고, '리'는 이치를 나타냅니다. 우주만물의 본성은 이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자신의 본성을 잘 드러내면 우주의 이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를 바탕으로 성리학을 창시한 주희라는 학자는 "하늘이 사람들을 낸 이래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인의예지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리학의 연구주제 중 하나인 "이기론"은 만물의 발생과 존재를 '이'와 '기'로 설명합니다. 만물은 '이'와 '기'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 만물의 생성원리인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이 만물에 부여되면 '리'가 되고,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과 원리인 '리' (혹은 사람에게서는 '성')가 구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리'라면, 그 물이 담기는 그릇이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게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선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리'가 담기는 그릇, 재료인 '기'는 존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청탁수박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기론을 인간의 마음 탐구에 적용한 내용이 바로 '심성론'입니다. 심성론은 인간의 마음인 '심'은 인간의 본성인 '성'과 인간의 감정인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원리로서, 이치 그 자체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정'은 우리의 본성이 현실의 상황과 만나 나타나는 온갖 느낌들로서 사단과 칠정이 있습니다. 선한 감정들도 느낄 수 있지만, 가끔은 악한 감정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태어난, 부여받은 이치 그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이 담기는 그릇인 육체(몸)에 따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고 수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참고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YYZGrRo5v0s>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비교]

※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한 설명

인간의 인격은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첫째, 이드(Id)는 쾌락의 원리에 지배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성욕과 같은 원시적 욕구를 말한다. 어린아이의 본능적 욕구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자아(Ego)는 현실을 고려하는 현실 원칙에 지배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외부의 현실에 적응하여 자신의 욕구를 포기한다. 셋째, 초자아(Super ego)란 이드를 제압하는 좀더 높은 자아를 말한다. 자아가 조금 더 발전하면 초자아가 생기는데, 이것은 보통 양심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참고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39468&cid=47323&categoryId=47323>

※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심성론의 비교

프로이트는 인간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무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무의식이 발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성론에서도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프로이트 심리학의 무의식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한 점과, 심성론에서 우리의 기질을 다스리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 점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무의식은 리비도(성충동), 혹은 죽음의 욕구 등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성론에서는 인간에게는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과 비교]

※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 (로고테라피)

수용소에서 프랑클은 그동안 연구해 온 심리학 이론과 정신의학적 개념을 집대성한 원고를 옷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지만, 그 옷을 잃어버리면서 원고도 함께 없어져버리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프랑클은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자기가 직접 보고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책을 쓰려고 생각한 것이다. 만일 그 원고를 갖고 있었다면 그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만, 몽땅 잃어버린 덕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그는 F의 사례가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반드시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당사자의 내적인 힘, 즉 이 끔찍한 경험을 개인의 성장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프랑클의 생각은 점차 확신

으로 변해갔고 그가 세운 이론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으로 그 생각은 그가 끝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힘이었다. 2년 반 동안 네 군데의 수용소로 옮겨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마음이 그를 살렸던 것이다. 부모와 아내, 남동생을 모두 잃는 비극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실 그는 아내와 이송된 수용소가 갈리는 바람에 아내가 사망한 것도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전쟁이 끝난 후 빈으로 돌아와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아내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몇 주일 동안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 비록 목숨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이 더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우울증과 자살을 치료하던 프랭클 본인이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살아남은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죽을까 봐 크게 걱정할 정도였다. 다행히도 서서히 우울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면서, "어떤 큰일을 겪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흔치 않은 일인건 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기 시작했다.

→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와 심성론의 비교

프랭클은 인간이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질을 다스리는 수양을 강조한 심성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